

유다의 말들

애굽에서 구해 온 양식이 바닥났다. 여전히 시므온은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고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새로운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장남 르우벤이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요셉에 이어 시므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냐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 창세기 43:9-10**

유다의 말에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야곱의 마음이 열린다. 야곱의 다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자식을 또 하나 잃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평생을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의 손이 처음으로 펴지는 순간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 창세기 43:14**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에게 바칠 예물과 갑절의 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관저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총리의 초대에 어리둥절했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요셉을 보며 긴장을 풀고 함께 즐거워한다.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요셉이 또 하나의 계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형제들에게 추격대를 보내 짐뒤짐을 하자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막내에게 혐의를 씌워서 애굽에, 자신 곁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가 요셉의 관저로 연행되었고 총리의 심문이 시작됐다. 그때, 유다가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 창세기 44:33**

은잔을 훔친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자신을 내놓는다. 제가 막내 대신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한다. 유다는 야곱의 입장이 되어 두 아들 중 하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이 아들마저 잃으면 아버지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풀어주세요. 유다의 말이 끝났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린다.

유다가 겪은 일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고 누명을 씌워서라도 베냐민을 곁에 두려는 요셉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다.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유다는 형제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한 차례 집을 떠났었다. 언제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살았었고 아들 둘을 잃었으며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불행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식을 잃어본 야곱이 또 잃으면 잃으리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자식을 잃어본 유다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볼 때에도 유다의 말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다는 변했다. 요셉을 팔고 형제들을 떠나서 겪은 일들이 유다를 변하게 했다. 아들들의 죽음과 며느리 다말과의 일을 겪고 돌아온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불행을 아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유다의 고난은 유익이 되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